

# 화려한 미디어아트... '광양의 밤' 예술이네

### 광양-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개막... 10일까지 전시퍼레이드 시청 외벽 '광양 린츠 산수도' 빛·영상·소리 어우러져 시민들에 인기

2024 광양-린츠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이 지난 2일 화려한 막을 올리고 9일간의 전시퍼레이드를 펼친다.

광양시는 지난 2일 광양시청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류전의 개막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로라 웰젠바흐(Laura Welzenbach) 아르스일렉트로니카 센터 해외책임자를 비롯해 수시 구츠키(Susi Gutsche) 등 국내·외 작가들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이날 광양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개막식은 '빛을 쏘다'라는 주제의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시립국악관현악

단의 '대정창의' 연주가 시립합창단의 '아리랑' 공연과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예술공연이 펼쳐졌고,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의 힘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광양에서 린츠까지, 빛을 찾아서' 작품이 상영됐으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김창겸 작가와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파사드쇼가 펼쳐졌다.

시청 외벽을 캔버스로 삼아 상연된 작품 '봄의 향연'과 '광양 린츠 산수도'는 빛·영상·소리가 어우러진 황홀경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축하공연과 피날레 공연 또한 장관이었다. 뮤지컬 가수 윤지인 씨는 린츠시에서 온 방문단과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아름답고 힘 있는 목소리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으며, 이어 목죽도 미디어아트 영상 배경으로 한 대금연주가 가을밤의 정취를 자아냈다.

광양시 소년소녀 합창단과 광양시립창작국악관현악단은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맡아 윤지인 씨와 함께 피날레 공연을 펼쳤다.

이번 교류전은 광양읍 광양예술창고·예담창고·인서리공원반창고·구루커피 로스터스·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사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오는 10일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미디어아트 교류전은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으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광양시가 대한민국 미디어아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24 광양-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이 지난 2일 광양시청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광양시 제공>

## 떠나요! 꽃무릇·핑크물리 만발한 전남으로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 숲길에 핑크물리가 만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보성군 제공>

### 광양 우산공원 꽃무릇 활짝... 보성 우산교차로 핑크물리 절정

광양시 '꽃무릇'·보성군 '핑크물리'. 만개한 가을꽃들이 전남을 찾은 전국 나들이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광양시 광양읍 우산공원 입구에 꽃무릇이 만발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우산공원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문화시설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꽃무릇의 화려함으로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독특한 특성

덕분에 상사화로도 불린다.

꽃무릇 단지 인근에는 편백숲과 소나무 산책로가 연결돼 있으며, 인근의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광양읍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원 내에는 유아숲체험원, 체육시설, 산책 데크, 바닥분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꿈틀리논이터'는 올해부터 3년간 행정안전부 전국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 핑크물리는 보성군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국도 2.1km 구간에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핑크물리가 절정에 달한 이 구간은 보성군이 약취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핑크물리 절정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기도 하다. 이 숲은 지난 2022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저소득층 내년 복지혜택 확대

### 중위소득 6.42% 인상...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1억3000만원 상향

고흥군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으로 6.42%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인상돼 월 5만2000원이 추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최대 6.4% 인상돼 월 1만7000원이 더해진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배기량 2000cc 미만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

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재산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읍면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 여수해경 낚시어선 사고 예방 항포구 안전협의체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낚시어선 항포구 안전협의체로 구성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여수낚시어선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사고현황과 사례공유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 및 안전운항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안 ▲협의체 기관별 해양사고 예방관련 지원 협조사항 등이다.

특히 가을철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고예방과 안전관



여수해양경찰은 가을 낚시철을 맞아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지난 4일 여수시 국동 선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리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선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kch@kwangju.co.kr

## 섬 탐험하며 '내 고장 여수' 애향심 키우기

### 시, 26일 프로그램 운영...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여수시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다섬이와 떠나는 아름다운 섬탐험'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여수시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섬과 바다를 보면서 여수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섬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의 섬의 역사와 섬마을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를 활용해 여수·고흥 간 연륙교를 따라 조발도·문병도·남도·적금도 등의 섬 문화를 들여

다보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또한 섬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 줍기(플로깅) 시간도 가져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학생은 오는 10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osu.go.kr/edu)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061-6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구례 저장강박세대에 청소 봉사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참여...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도



구례군이 지난달 28일 간전면 상만 마을에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사진>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자원봉사자 등 40여명과 함께 '비움·재움·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저장강박 가정을 방문해 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사전에 실

시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20명의 자원봉사자는 오는 11월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는 옷과 이불 등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대형 이동 세탁 차량을 지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관계 회복 및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의미 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보성에서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

### 10일부터 5일간 군청 광장일대

보성군의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이 오는 10일부터 5일간 보성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보성 차나무분재협회 주관으로 처음 열린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은 하얀 차꽃이 피어나는 10월, 차나무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 명명하늘과 어우러진 하얀 꽃을 볼 수 있는 차꽃 터널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이끌면서, 차나무 분재 100점·소품 30점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 대전 참가예정 작품.

특히 이번 대전을 통해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드높이고, 분재 문화 확산과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